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 답변**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  
(일괄질문 · 일괄답변)입니다.



## 이 병 철 의원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용문초등학교 신설해야 합니다.”

“문화 · 예술 수요도가 높은 도안지구에 관련 시설 확충 필요.”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복지지원강화 대책은?”

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



## 이 병 철 의원

### ● 이병철 의원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제4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민 여러분께서 부여한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시는 현안을 고민해 보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용문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동호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헌법 제31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은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앞당기는 근간입니다.

특히 초등교육은 아이들의 인간관계 발달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학습의 기초를 다지는, 어찌 보면 한 인간의 생애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교육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초등교육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과 양질의 교육환경이 마땅히 제공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당할 우려가 있기에 용문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82개 행정동 중에 초등학교가 없는 행정동은 용문동, 중앙동, 홍도동 3곳입니다.

그나마 중앙동은 핵심 주거지역의 500m 내외에 삼성초등학교와 신흥초등학교 등이 있고 홍도동은 근거리에 동산초등학교와 성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문동의 경우 재건축 지역인 1·2·3구역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탄방초, 가장초가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아이들이 보도로 통학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특히 상습정체구간인 용문역 사거리 중심으로 차량 이동량이 많고 해당 통학로가 매년 교통자·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는 보행자 사고 상습다발지역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며 매년 증가해왔고 2020년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정부가 발표·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지난 4월 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아이들의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설동호 교육감께서는 용문초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 만큼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 자리를 빌려 용문초등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과밀학교를 방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용문동은 재건축 지역인 1·2·3구역 2,800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재건축 1개소, 재개발 1개소, 기타 공공주택 5개소, 가로주택 정비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있어 총 4,300세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용문동 재건축 1·2·3구역에 대한 분양이 100% 완료되면 학생 수 산출을 다시 해 신설을 재검토하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까지 함께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용문초 신설에 있어 가장 난관으로 생각했던 중앙투자심사가 법 개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되면서 총사업비 300억 미만의 소규모학교 또는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되고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만으로도 신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복합시설과 함께 용문초등학교를 신설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용문초등학교를 신설하면서 수영장이 함께 있는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아이들은 의무교육인 생존수영을 포함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더 좋은 환경에서 습득할 수 있고 주민들은 학교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더 편리한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어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신설과 주민복합 공유공간 조성은 서철모 서구청장의 용문동 지역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는다면 용문초등학교 신설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교육청이 용문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용문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제가 제안한 방법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의지가 있으신지 용문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시 문화예술시설 확충에 대한 현안을 이장우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에 밑바탕이 될 10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를 바탕으로 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도로 성장하여 도시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대한민국과 세계도시 문화를 선도하는 일류도시 대전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세부 추진전략으로 문화도시 분야에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하셨기에 현재 우리 시에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살펴보고 시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지난달 18일 동·서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도심 내 수변 및 녹지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도심 속 부지로 중촌근린공원에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 공연장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부족한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아직 우리 시는 문화예술시설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에 울산과 세종을 제외하고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우리 시가 문화를 선도하는 일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시설 확충은 물론 문화도시로서의 정책성 확립 및 장기적인 로드맵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 추가로 문화예술시설이 건립된다면 어느 지역에 건립되어야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시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하며 수요가 많고 접근성이 용이한 보다 합리적인 입지조건을 가진 곳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련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수요 연령은 20대로 90.6%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했고 비교적 20대 미만부터 40대까지 관람률이 높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통계를 먼저 제시한 이유는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 수요가 높으나 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둔산지구, 노은지구, 도안지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거지역 3곳을 빅데이터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복지향상을 위해 도안지구 문화예술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포털사이트에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시설을 검색하면 나오는 지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안지구에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도안지구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안지구의 총인구는 7만 3,924명으로 이 중 20대 미만은 1만 7,256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문화예술의 수요도가 높은 20대, 30대, 40대 비중도 45.5%로 둔산지구 44.1%, 노은지구 43.6%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안지구 유동인구 분석결과 하루 평균 40만 9,102명, 일일 시간당 평균 1만 7,046명으로 30대 19.4%, 20대 18.7%로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이 활발한 20대, 30대 유동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더불어 도안지구가 다른 지구와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여가 수요도가 높다는 걸 방증하는 데이터는 또 있습니다.

2022년 3곳 지구의 업종별 매출액 현황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 비중이 도안지구에서 가장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둔산지구와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없으며 인구가 비슷한 노은지구와 비교했을 때 도안지구 약 22억, 노은지구 약 5억으로 매출액이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문화예술 수요도가 높은 연령층의 비중과 유동인구, 관련 매출액이 높은 도안지구에 문화예술시설이 없다는 건 우리 시가 충분히 시설 확충에 대해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안지구 개발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3단계 개발까지 완료되면 노은지구를 뛰어넘고 둔산지구와 맞먹는 대전의 핵심 주거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문화예술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도안지구는 2호선 트램이 관통할 예정이어서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기도 수월하고 인근 교촌동 일원에 대한 역대 최대규모 국가산업단지인 나노반도체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충분히 타 시·도에서 인구유입도 가능하므로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안지구의 중심인 도안동에는 음대와 미대로 유명한 목원대가 있고 인근에는 충남대, 한밭대, 배재대, 건양대가 자리 잡고 있어 도안지구는 우리 학생들도 편리하게 문화예술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아직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당연히 문화예술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고민해야 할 부분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문화예술시설들이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장님의 포부대로 대한민국과 세계도시문화를 선도하는 일류도시 대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계획 중인 문화시설 확충방안과 어떠한 로드맵으로 문화예술 선도도시를 준비하고 있는지, 앞서 제가 제안한 도안지구 문화예술시설 확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반려인구에 따른 반려동물 복지 지원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공원이 지정됐고 광역단체가 직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유일하며 상서동 반려동물놀이터를 운영해 반려동물 복지환경 측면으로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노력으로 대전시는 전국에서 선도적인 반려동물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만 나아가 명실상부 최고의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점검해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국 606만 가구 중 25.9%, 약 155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사회지표조사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전국 반려가구 수치를 웃도는 34.8%로 65만 가구 중 약 23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반려가구 수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지표조사에 따르면 2019년 17.8%에서 2020년 21.6%, 2021년에는



34.8%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반려인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반려동물 지원정책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에 따른 정책이 반려 양육자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유기동물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그 취지에 맞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원사업들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니 2022년 집행률이 60~70%대로 다른 사업에 비해 비교적 낮았고 올해 집행액을 보더라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보통 사업목표를 잘못 설정했든지 아니면 정책 홍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데 홍보와 관련해 부족함이 없는지 관련부서에서 점검해 주시고 시민들께서 정책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보험연구원의 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구의 82.9%가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려동물의 고령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양육가구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8%에 불과합니다.

양육가구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반려동물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에 현 정부도 펫보험 활성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당국 등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만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약자에 대해서도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의료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펫보험 활성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반려동물 공약사항으로 시민요구를 반영한 반려동물 정책발굴 및 시민공론화 협의체 운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관련해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과 나아가 본 의원이 제안한 펫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 중 현장에서 만나 뵈 시민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시민 여러분을 대신해 질문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병철 의원님께서 가칭 용문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부의 학교 설립 기준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심사 지침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 학생 수, 통학구역 내 학생 수 증감 추이 등을 확인하여 인근학교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칭 용문초등학교 신설의 경우 용문동 1·2·3구역 개발에 따른 증가학생을 통학구역 내의 학교인 대전탄방초에 배치되는지와 학교 설립 가능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용문동 1·2·3구역 개발사업에 따른 증가학생은 대전탄방초의 여유교실을 활용하면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문동, 가장동 인근지역 개발계획이 진행되어도 증가학생 폭이 크지 않아 기존 학교에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한 통학환경은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억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과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한 학교 설립의 경우 가칭 용문초등학교는 높은 용지비와 건축비 상승으로 300억 미만의 소규모사업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신설학교의 학교복합시설화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제외되지만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제반여건이 충족되면 지자체와 협의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칭 용문초등학교 신설은 인근지역 개발상황, 증가 예상 학생 수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학교 설립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합, 입주민대표 등과도 적극 소통하여 학교 설립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이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 도안지구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대전시 반려동물의 복지 지원 강화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도안지구 문화예술시설 확충 중에 시에서 추진 계획 중인 문화예술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로드맵, 도안지구 문화예술시설 확충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민의 문화예술 수요에 비해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일류도시의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의 인구 1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0.43개로 17개 시·도 중에 열두 번째, 특·광역시 중 세 번째입니다만 사실상 문화기반시설로 보면 울산 빼고는 대전시가 최하위권으로 보입니다.

또 인구 대비로 볼 때는 사실상 광주가 문화시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서울, 대전입니다만 사실상 대전의 문화기반시설은 최하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언론인 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촌근린공원에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 공연장, 원로예술 특히 대전을 빛낸, 대전 출신, 대전에서 활동한 세계적인 화가들 미술관을 유치해서 중촌근린공원을 하나의 세계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은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먼저 디자인 후에 설계를 실시해서 그동안 세계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 유럽 분관에 버금가는 명품건축물과 운영시스템을 갖춰서 세계적인 문화시설로 육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옛 한전보급소를 매입해서, 10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복합문화전시 공간으로 조성하고 소재중앙공원에는 이종수 선생 유족분들께서 도자기를 기증하시기로 하고 이미 협약을 맺어서 미술관을 건립해서 문화시설 확충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거기예다가 대흥동 테미예술창작센터에 제2대전문화관 그리고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전기에너지전시관도 매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웹툰 클러스터 구축,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등 다양한 시설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안지구 내 문화예술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안지구는 당연히 신도시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정주여건으로는 대전에서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인구증가 면에서도 굉장히 높고 경제적인 요소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반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시설은 애당초 신도시를 종합적으로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안지구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설계로 이 도시를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화예술·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배치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안지구는 특히 호수공원이라는 대형사업이 들어가 있고 또 호수공원을 포함한, 습지 지정 포함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크게 걱정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거기예다 도안에는 대전시립미술관 또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작은내수변공원 내에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용계동에 짓는 종합운동장에 기존의 종합운동장 포함한 스포츠시설을 대대적으로 집어 넣게 되는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27년 전에 준공해야 될 거로 봅니다.

지금 대전시에 짓고 있는 베이스볼드림파크, 야구장도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주 변경내용이 야구가 없는 시즌에는 문화예술공연이 가능하도록 무대설치나 전력공급, 나아가서 공연에 대기하는 대기자실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은 기존의 종합운동장 하나만의 기능을 가지고는 예산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종합운동장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하고 또 그런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문화예술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설계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월드컵경기장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월드컵경기장을 지었을 때 만약 문화예술공연이나 이런 다양한 시설을 갖기 위한 기능을 그 당시에 고민했더라면 월드컵 경기장도 프로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을 훨씬 높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도안지구 내에는 종합운동장 포함한 종합스포츠타운을 할 때 문화예술시설을 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안지구는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 나노반도체산단이 지정돼 있고 또 대전교도소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교도소 포함한 국가산업단지 안에 할 때 저는 마이스 산업을 대비한 대규모 회의 산업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바이어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호텔 이런 것들을 겸하고 거기에 플러스 문화시설도 결합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안신도시는 지금 대전시 중에 가장 새로운 신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많고 지금 당장 실현은 어렵습니다만 추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서 의원님 우려하시는 이런 시설들을 잘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려인구 증가에 대비한 지원사업의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가능시설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또 성숙한 동물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갖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책임 강화와 유실,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과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기동물 감소율 전국 1위, 동물등록률 광역시 2위, 제4회 동물복지대상 수상 등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대전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29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전시를 선진지 견학차 방문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반려동물 정책을 강화해야겠다는 것은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사업추진 방식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장형 등록 지원 같은 경우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동물병원 등 관련 업체들 또 SNS를 통한 홍보 이런 것들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을 확대한다든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및 사회적약자 지원 필요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반려인들이 반려동물로 인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지만 비싼 의료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유기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약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현재 시에서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증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는 분들, 차상위계층 분들을 위해서 약 500명가량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질병검사, 치료 등을 하고 있고요, 사용 의료비의 80%,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대전시가 종합행정서비스를 하는 지방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을 전 분야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더 획기적으로 높이고 싶어도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보험을 포함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정책들을 좀 더 강화해서 사회적약자나 장애를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 정책이나 대전시의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요구를 반영한 반려동물 정책 발굴 및 시민공론화 협의체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는 작년 말 반려동물 양육자 3,800명에 대한 정책 수요조사를 했고 그 수요조사의 기초에 의하면 동물보호센터 입양, 특히 이게 가장 필요한 시설로 파악됐고요, 동물놀이터가 두 번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 시민들 의견, 여론조사를 해보고 반려인들과 비반려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두가 행복한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공론화 협의체 이런 것을 구성하다 보면 공론화하다가 하세월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즉시 시행하는 것이 훨씬 정책을 실효성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시민공론화 협의체 부분은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정질문·답변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ITY COUNCIL